

**Title: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study 3****The miraculous birth of John the baptist**

Scripture: Luke 1:8-14, 24-25, 57-58

Date preached: November 28th 2021

**Scripture: Luke 1:8-14, 24-25, 57-58**

**8** So it was, that while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in the order of his division,  
**9**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his lot fell to burn incense when he wen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10** And the whole multitude of the people was praying outside at the hour of incense. **11** The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12** And when Zacharias saw *him*, he was troubled, and fear fell upon him.

**13**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acharias, for your prayer is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ohn. **14** And you will have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joice at his birth.

**24** Now after those days his wife Elizabeth conceived; and she hid herself five months, saying,  
**25** “Thus the Lord has dealt with me, in the days when He looked on *me*, to take away my reproach among people.”

**57** Now Elizabeth’s full time came for her to be delivered, and she brought forth a son.

**58** When her neighbors and relatives heard how the Lord had shown great mercy to her, they rejoiced with her.

**8** 사가랴가 자기 반의 차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였다.

**9** 제사장직의 관습대로 제비를 뽑은 결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10** 그리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11**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서자. **12**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

**13**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 이라고 불러라. **14** 너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24**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25**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피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하였다.

**57**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Review**

Last week we spent some time considering God's choice for John's parents. God of course never makes errors or mistakes. Everything He does is the right and best thing in any situation. Therefore we can be sure that He chose the perfect parents for John. John as we know was to be a very special and unique individual. It was appropriate then that God select a very special couple to bring him into this world and raise him in the right way.

God chose Zacharias and Elizabeth. Zacharias was a priest, a member of the tribe of Levi. In the first century there were many priests operating in Jerusalem. Therefore they were divided into 24 divisions or groups. Each group would serve at the temple for one week twice during the year. Zacharias was a member of the 8<sup>th</sup> division named after Abijah. Sadly we know from experience that not all religious people are good and godly. How often do we see high profile church leaders or elders fall into sin and bring shame upon the church. Sadly this has always been the case. The priests in Zacharias' day were just as prone to corruption and falling into sin as church leaders today. However Zacharias was a righteous man. He sought after God and attempted to live in obedience to what God wanted.

His wife Elizabeth was also a righteous and godly person. In practice this meant that she cherished, obeyed and supported her husband and sought to love and obey God. Just like her husband she also came from the priestly line of Aaron. This made their marriage union a special one and meant that they were the right people to care for and raise John.

The other significant things were told about this couple that are relevant for today's study are that they were old and had been unable to have children. Elizabeth's childless state was not as a result of her sin. We know that she was a godly and righteous woman, and normally such people could expect to be blessed by God with children. God had determined however to keep this blessing from her until she was well advanced in years.

We are not told their exact ages, but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y were too old (humanly speaking) to have children. Today with the benefit of fertility treatments and cutting edge technology women can give birth much later in life. The current record for the oldest mother is held by a 74- year old Indian woman. Obviously these medical interventions were not available in Elizabeth's day. What was available was a divine intervention. Today we will look at John's miraculous birth.

지난 주에 우리는 John 의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수나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요한에게 완벽한 부모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데려오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부부를 선택하신 것이 적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셨습니다. 사가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1 세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24 개 사단 또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각 그룹은 일 년에 두 번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8 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모든 종교인이 선하고 경건하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명성 높은 교회 지도자나 장로들이 죄에 빠져 교회에 수치를 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봅니다. 슬프게도 항상 그랬습니다. 사가랴 시대의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처럼 부패하고 죄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녀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지원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아론의 제사장 가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결혼 조합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고 그들이 John 을 돌보고 키울 책임자임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의 연구와 관련된 이 부부에 대해 언급된 다른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자녀가 없는 상태는 그녀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는 그녀가 경건하고 의로운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몇 년 동안 잘 성장할 때까지 그녀에게서 이 축복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확한 나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인간적으로 말해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불임 치료와 최첨단 기술 덕분에 여성은 훨씬 더 늦은 나이에 출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령 어머니 기록은 74 세 인도 여성이 갖고 있다. 분명히 이러한 의료 개입은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기적적인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Study plan**

Today we will be considering the miraculous birth of John.

1	Setting the stage
2	John's godly parents
3	The miraculous birth of John
4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part 1
5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part 2
6	John and Jesus
7	The death and legacy of John

### **Introduction**

I'm sure you have heard people describe the arrival of a new baby as a miracle. Certainly the birth of a new child and the joy that it brings is a wonderful and special thing. When we hold our new born infants we feel that they are special, miraculous gifts from God. But strictly speaking the birth of a child is not a miracle. It's not a miracle because it happens thousands of times every day. The UN estimates that around 385,000 babies are born each day around the world. The simple truth is that women having babies is a natural part of life. A miracle by contrast is used to describe something that is not natural.

A miracle may be defined as an act that only God can perform, and one that usually supersedes natural laws. A miracle then is something beyond the natural, it is supernatural. *Baker's Dictionary of the Bible* defines a miracle as;

*“an event in the external world brought about by the immediate agency or the simple volition of God.”*

Now we have just noted that women naturally give birth to children. What makes John's birth a miracle? It was a miracle for the following reason. His parents were too old to naturally have children. A woman's body stops producing eggs at a certain age. Women past the time of menopause cannot conceive and give birth to children. So without God's intervention, without a miracle the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have John. Let's find out how all this came about.

나는 사람들이 아기의 탄생을 기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실히 새로운 아이의 탄생과 그것이 가져오는 기쁨은 훌륭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을 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적적인 선물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수천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 아닙니다. UN 은 전 세계에서 매일 약 385,000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추정합니다. 단

순한 진실은 아기를 갖는 여성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기적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연법칙을 대체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자연을 넘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Baker's Dictionary of the Bible 은 기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직접적인 행위나 하나님의 단순한 의지에 의해 야기된 외부 세계의 사건." 이제 우리는 여성이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요한의 탄생이 기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너무 나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특정 연령이 되면 난자 생성을 멈춥니다. 폐경기가 지난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기적이 없었다면 그들은 요한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다.

**8 So it was, that while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in the order of his division, 9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his lot fell to burn incense when he wen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10 And the whole multitude of the people was praying outside at the hour of incense.**

Zacharias was a priest. Twice during the year for just one week he would be called along with his division to serve at the temple. According to the Jewish historian Josephus there were around 20,000 priests, and so they had to draw lots to determine who would light the incense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at the time of sacrifice. In actual fact there were three lots cast to determine who did what at the time of sacrifice. The first lot determined who would cleanse the altar and prepare its fire. The second lot determined who would kill the morning sacrifice and sprinkle the altar, the golden candlestick, and the altar of incense. The third lot determined who would come and offer incense. To draw the third lot was considered to be a great honour and something that a priest might get to do just once during their lifetime. God arranged it so that on this particular day it would be Zacharias' turn. Zacharias entered the holy place (not the holy of holies) where the altar of incense was located.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일년에 두 번 단 일주일 동안 그는 자신의 부서와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약 20,000 명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바칠 때 아침과 저녁에 누가 분향할지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제물을 바칠 때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세 가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제비는 누가 제단을 정화하고 불을 준비할지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비는 누가 아침 제사를 잡고 제단과 금촛대와 분향단을 뿌릴 것인지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비는 누가 와서 분향할지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비를 뽑는 것은 큰 영예이자 사제가 일생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정한 날에 사가라의 차례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사가라는 분향단이 있는 성소(지성소가 아님)에 들어갔다.

**11 The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12 And when Zacharias saw *him*, he was troubled, and fear fell upon him.**

As Zacharias is lighting the incense an angel materialises or appears to his right. Quite possibly he had been praying with his eyes closed and when he opened them there was this supernatural being. The angels position on his right might indicate that this is the side of honor or favour and that the angel was bringing good news. Understandably Zacharias is troubled or frightened. We often have a romantic, unrealistic image of angelic beings. Little chubby smiling babies with wings. In reality, they are awesome and at times terror inducing beings. Let's see what

the angel has to say.

사가라가 향을 피울 때 천사가 구체화되거나 그의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때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오른쪽에 있는 천사의 위치는 이것이 명예나 호의의 면이며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가라는 고민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사의 존재에 대한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진 작은 통통한 웃는 아기. 실제로, 그들은 굉장하고 때로는 공포를 유발하는 존재입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13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acharias, for your prayer is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ohn.**

The angel, who we later find out is Gabriel tells Zacharias not to be afraid. He goes on to tell him that his prayer has been heard by God. Zachariais might have at that moment been praying for a son or it might mean that his recent or periodic prayers for a son have been heard. We must remember that God always hears our prayers. He however does not always answer them in an immediate fashion. God has just three ways in which He responds to our prayers. They are **yes**, which is our preferred response. **No**, which is our least favoured response and **wait**, which is for most of us the hardest to deal with.

God's answer to Zacharias and Elizabeth's prayers is that He is going to bless them with a son. All those years of prayers are about to be fulfilled. They are to be blessed with a son and God is giving him the name John. When God gives someone a name it is always highly significant. The person's very name carries a message about who they will be, and what they will accomplish. In the bible seven people were named before birth; Ishmael, Isaac, Solomon, Josiah, Cyrus, John and Jesus. The name John (*Johanan* or *Yochanon*) is originally a Hebrew name which means, "God is, or has been gracious." What an appropriate name for one whose mission it was to announce the arrival of the Messiah. The one God sent in his grace to save us.

나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알게 된 천사는 사가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Zachariais 는 그 순간에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최근에 또는 주기적으로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즉각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단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이며 우리가 선호하는 응답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응답과 기다림이며, 우리 대부분이 가장 다루기 힘든 것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아들을 낳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해의 기도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것은 항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자체에는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곱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마엘, 이삭, 솔로몬, 요시야, 고레스, 요한, 예수. 요한(요한난 또는 요하논)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또는 은혜를 베푸신 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 사명인 사람에게 참으로 적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

**14 And you will have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joice at his birth.**

What a wonderful verse this is. Zacharias, whose heart had been full of disappointment and fear will have those negative emotions replaced. He will soon experience joy and gladness. His wife Elizabeth too will share this joy and later so will many other people. Zacharias and Elizabeth would experience this joy because a long awaited and prayed for child had arrived. But their joy would also come from John's spiritual greatness. John was destined to be someone very special, a person who God would use in a mighty way. This is what Gabriel says regarding John's character and what he will accomplish.

이 얼마나 멋진 구절인가. 마음에 실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가랴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곧 기쁨과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 기쁨을 나눌 것이며 나중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던 아기가 도착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또한 요한의 영적 위대함에서 옵니다. 요한은 매우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실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브리엘이 요한의 성품과 그가 성취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15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shall drink neither wine nor strong drink. He will als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from his mother's womb. 16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children of Israel to the Lord their God. (Luke 1:15-16)**

What an amazing thing to be told about your child. What was Zacharias' response to this announcement? Sadly his reaction was not good. He questioned how this could all be true. He was unable to believe that God could give him or his elderly wife a child. He looked therefore for a sign to prove that Gabriel was speaking the truth. I think we too are guilty at times of putting limits on what God can do. We lack the faith that God can do the impossible. His punishment for doubt was that he was unable to speak and probably also hear until the child was born. Let us skip forward a few verses and see what happens.

당신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선언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모두 사실일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연로한 아내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브리엘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표징을 찾았습니다. 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한계를 두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의심에 대한 그의 처벌은 그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할 수 없었고 아마도 들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구절을 건너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24 Now after those days his wife Elizabeth conceived; and she hid herself five months, saying, 25 "Thus the Lord has dealt with me, in the days when He looked on me, to take away my reproach among people."**

Elizabeth conceived a child in the natural normal way. Jesus of course was conceived without a human father but John's father was Zacharias.

We should note that the announcement that this would happen came prior to John being conceived. This underlines the fact that John was a miracle baby. When Elizabeth found out she was pregnant she kept herself hidden from the world for five months. Why did she do this? There may be a number of possibilities. Perhaps as an elderly woman she wanted to keep herself and the baby safe. Maybe she did not want to be seen in public until there was no doubt that she was pregnant.

Personally, I think she devoted this time to praising and thanking God for answering her prayers. As a righteous woman she recognised God's grace in her life and knew it was all down to Him. We should learn from Elizabeth. How often we ask God for things but then neglect to thank Him when He gives them to us. Elizabeth was glad that the reproach of others would now finally end. People would no longer look down upon her or gossip in the market place about why God had made her barren. Let us now read about John's birth.

엘리자베스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 없이 잉태되셨지만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발표가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적의 아기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5개월 동안 세상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것을 했습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자신과 아기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대중 앞에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녀는 이 시간을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여성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자베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물건을 구하면서도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치욕이 끝나게 되어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업신여기거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임으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 험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7 Now Elizabeth's full time came for her to be delivered, and she brought forth a son.**

**58 When her neighbors and relatives heard how the Lord had shown great mercy to her, they rejoiced with her.**

Let us if we can try to put ourselves in that scene. Zacharias and Elizabeth lived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Imagine the excitement as Elizabeth recognises her time is due. Zacharias the anxious father pacing up and down outside as the women of the village help Elizabeth. And then the cries as the infant John is brought into this world. Their prayers have been answered. God's promise is fulfilled. God remember always keeps His promises. Their miracle baby has arrived. The whole village rejoices with the new parents. They knew that these were good, godly people and how they had desired and prayed for a child. Sadly we often feel jealousy when God blesses others. We live in a very self centered and greedy world. Demonstrated here however is the proper response when God blesses others. It is to be joyful and celebrate with them. Next time we will see what this special child will go on to do.

우리가 그 장면에 자신을 넣을 수 있다면 보자.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는 유대 산지에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인식했을 때의 흥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한 아버지 사가랴는 마을 여성들이 엘리자베스를 도우면서 밖을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아기 요한이 이 세상에 데려왔을 때 울부짖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아기가 도착했습니다. 온 마을이 새 부모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아기를 위해 간절히 바랐고 기도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종종 질투를 느낍니다. 우리는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의 합당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특별한 아이가 계속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points to make from today's study.

나는 오늘의 연구에서 두 가지 요점을 만들었습니다.

**1 Miracles do happen**

Zacharias and Elizabeth desperately wanted a child. But now they were too old. It was humanly impossible for them to naturally conceive a child. But it was not impossible for God. Imagine the people of Israel arriving at the Red Sea with the Egyptians close behind. What were the people thinking; How will we ever cross? This is a hopeless situation. But not for God. My husband, wife, father mother is such a difficult person to reach. I tell them about Jesus and model a good example to them, but they never listen or change. It's an impossible situation. But not for God. I shall never break this sin habit I have. It's impossible for me to stop it. But it's not for God.

God frequently delights in doing what human beings consider impossible. It is His way of poking us and reminding us of who He is and why we must completely rely upon Him. So let us not despair and give up. Let us repeatedly go to the Lord in prayer in humble willing submission and ask Him to do the impossible.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들이 자연적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을 뒤로 하고 홍해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건너게 될까요? 이것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다가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만 그들은 결코 듣지도 바꾸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관을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찌르며 그분이 누구이며 왜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자발적인 복종으로 기도로 주님께 반복적으로 나아가 불가능한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2 Be thankful**

When I was a child I would frequently visit my friend's houses after school to play and eat dinner. When my mother came to collect me she would drill into me the importance of thanking my host. I would always be prompted to say, "Thank you for having me." We recognise, and teach our children the importance of thanking people for the good or generous things they do for us. These things are usually obvious. They have prepared a meal for us, or helped us fix a broken appliance. With God however sometimes things are less obvious. So much so that we take things for granted. We just assume that there will be clean air to breath and that rice will grow in the fields.

Elizabeth recognised that God had done something miraculous, and she was rightly thankful. Let us be more thankful to God without whom we would have nothing.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종종 방과 후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그녀는 호스트에게 감사하는 일의 중요성을 나에게 가르쳐 주곤 했다. 나는 항상 "나를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선하거나 관대한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거나 고장난 기구를 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때때로 상황이 덜 명확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우리는 단지 숨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있고 벼가 들판에서 자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당연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